

달빛, 달항아리

초대의 글

인류에게 달은 우주적인 생명력의 전형이자 지상적인 삶을 위한 생명의 원리로 간주되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달은 한국인의 정서적, 심미적 체험 속에서도 매우 큰 상징과 의미를 갖는다. 달의 시, 달의 그림, 달의 노래, 그리고 달의 서정 등에 걸쳐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달의 예술과 신비주의의 여운으로 감싸인 달의 미학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 속에 흐르는 달은 푸근한 것, 좋은 것, 길한 징조를 상징한다. 특히 만월의 풍요와 충만함의 미학을 담은 '달항아리'는 눈처럼 흰 바탕색과 둥근 형태가 보름달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자 달항아리는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정서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예술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3회 지스트 초대 기획전은 '달 항아리'를 모티브로 작업을 펼쳐가는 김기현, 조문현, 설상호 3명의 작가가 각자의 작업 속에 펼쳐낸 달의 노래를 통해 우리의 정서를 만월의 빛으로 감싸 안아 줄 것이다.

Director 최순임

Moon jar, 달빛, Moonlight, 달항아리

김기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응용미술 졸업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예학과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호남정신지체인 기능경진대회, 광주광역시전 외 다수 심사위원 역임
2022 소음전, 아산 조방원미술관, 옥과, 한국
선택적 미래-Y, 금봉미술관, 광주, 한국
화조월석 3인전, 금봉미술관, 광주, 한국
2021 무등산분청사기협회전, 무등갤러리, 광주, 한국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특별기획전
광주국제아트페어, 광주, 한국
2020 광주국제아트페어, 온라인 전시, 광주, 한국
2019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한국
목기구와 달항아리전,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한국
공예 아트 상품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한국
달항아리 달빛을 연주하다 - 김기현, 장용림 2인전, 잠월미술관, 함평, 한국
오월의 꽃전, 동신대학교 문화 박물관, 나주, 한국

설상호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 부산광역시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외 다수 운영위원/심사위원 역임
현) 한국미술협회이사, 광주광역시미술협회부회장, 광주-전남수채화협회회장, 신형회, 조형21회원, 북구미술인조형연구회 사무국장
2023 관계-호 설상호 초대전 포항서밋아트갤러리, 포항, 한국
BAMA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부산, 한국
THAI-KOREA Art Exhibition 2023, 태국 SN9 GALLERY, 태국
희망23, ACC DESIGN HOTEL 갤러리, 한국
창조적 진화 - 중랑과 속도, 광주시립미술관금남로분관, 광주, 한국
2022 호화(虎畵)로운스타트展, 금봉미술관, 한국
예술한상, 금호갤러리, 광주, 한국
Digital과 함께하는 2022 다모기, 카톨릭교구청 브레디관, 한국
2021 예술의 정원전, 명지미술관, 한국
영·호남미술교류전, 휘목미술관, 한국
3인3색 감성과 해석, 전남대학교 역사관 전시기획실, 광주, 한국
남부워터칼라페스티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한국
개인전 15회 기획전 및 단체전 250여회

조문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국화대전, 전국무등미술대전, 배동신 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 한국화 특장전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상 허백련특별상 수상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우수작가 선정 한국미협이사장상 수상
현) 한국미협이사
광주미협, 전통과형상,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북구조형미술연구회 회원
갤러리 다운 대표
개인전 16회 및 단체전 300여회

지스트 오룡아트홀 제3회 초대전

달빛, Moon jar, 달항아리

김기현
조문현
설상호

오룡관 1층
지스트 오룡아트홀

2023. 04. 10. 월 -
2023. 06. 07. 수

GIST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TEL 062-715-2628

어질고 넉넉한

_ 미술평론 고영재

유난히 밝은 만월 아래 사물이 칙흑 같은 어둠에도 유난히 빛나는 것처럼 달은 푸근하고 넉넉한 서정을 전달한다. 그러한 인심 좋은 달을 닮은 달항아리는 우리 도자사에서 조형미의 극치로 평가 받고있는 독창적인 유산이다. 조선시대 정치 이념으로 역할했던 유교 문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순박한 미감의 달항아리를 탄생시켰다. 달이 기울면 다시 차오르듯이 온전히 비워내야 이내 가득 채울 수 있을 테다. 비움은 욕심을 덜어내는 과정 뿐 아니라 포용력, 어진 마음과 같은 타인의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관용과 여유를 내포하기에, 그 옛날 우리의 선비들은 달항아리를 보며 생의 가치를 상기했을 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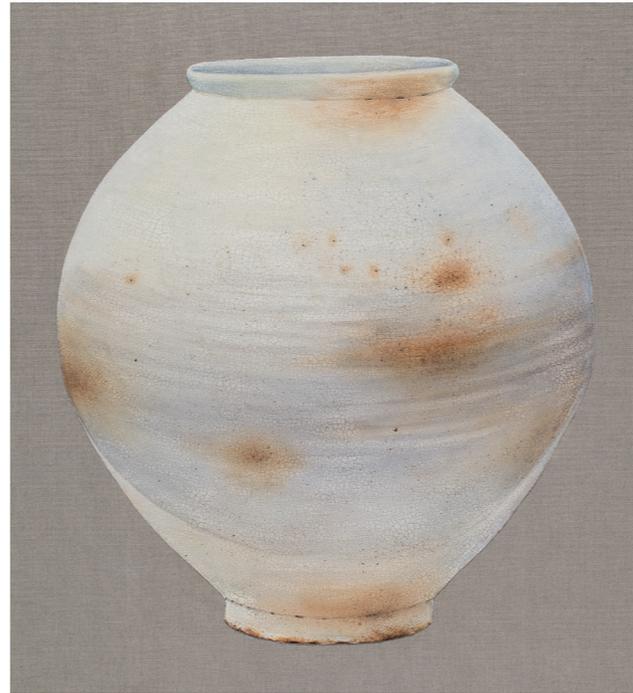
30년 넘게 도예 작업을 지속해온 김기현은 달항아리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통의 방식 그대로 두 개의 큰 사발을 이어 붙이는 성형 방법을 고집하는 작가는 장작가마 소성을 거쳐 달항아리를 제작한다. 자연의 빛이 똑같을수 없듯이 달항아리의 빛깔은 어리숙 하면서 완만한 비정형의 기형과 더불어, 각양각색의 미감을 자아낸다. 달항아리가 지니는 빛깔과 선의 오묘함은 어느 장소에 놓아도 주변을 하나로 아우르는 힘을 지닌다. 선비의 문갑 위에 여염집 찬장 한켠에 두둥실 자리했던 달항아리처럼 우리네 일상을 한없이 품어내고 다독일 수 있다면 좋겠다.

김기현



무등산 달항아리 | 48 X 45 X 44cm, 백토, 백유, 장작가마 소성

설상호



Lambent(Moonjar) | 112 X 122cm, Mixed material on asa, 2022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들을 소재로 도구의 연장선에서 허상의 만물을 모두 담아내고 싶었다. 시공간을 초월한 '관계'라는 주제는 시간이란 영원이 변천해 가지만 '순간'이 핵심이고 깊이가 되는 찰나를 의미한다. 현대가 기계로 바뀌고 허구의 세계가 현실처럼 다가서고 있지만 뛰어난 예술 작품은 여전히 신선한 현재를 자각하게 한다. 예술작품을 창조하여 감동을 선사하는 일을 하는 자체가 나의 기쁨이자 행복이다. 나의 작품은 내가 가진 모든 감각과 기관을 곤두세우며 내가 느끼는 경이로움을 담아내고자 한다. 나의 소소한 발견과 작업의 결실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에 얽매어 정신없이 사는 이들에게 전하는 새로운 선물이자 위로가 되기를 희망하여 본다. 여유조차 없던 현대인들에게 나의 작품으로나마 붓 끝에 정성을 담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담아낸 소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받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_ 교육학 박사 유봉자

조문현

달항아리의 순수함과 무심한 아름다움은 형언하기 어려운 흰 빛깔과 부드러운 둥근 형태에서 비롯된다. 달항아리 속에는 비움이 있고, 채움이 있으며, 포용과 관용의 아름다움이 있다.

조문현은 달항아리의 맑고 순수하며 그윽한 미감美感을 작품으로 표현한다. 그는 달항아리를 소재로 깊고 심오한 자연의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다. 그가 그린 달항아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정신적 풍요로움과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思惟의 세계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의 달항아리에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세계가 있으며,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산과 강, 해, 동물, 폭포와 나무, 집과 사람은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몰아일체物我一體 사상을 담고 있다. 이는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을 통한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연 순리 사상을 의미한다. 그의 그림은 고요한 명상의 세계와 생기발랄한 명랑함의 경계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은 선경仙境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그곳은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별유천지別有天地는 아닐까?



달항아리가 있는 풍경 | 259 X 130cm, Acrylic on Canvas, 2018